

제조업 급감 속 소비·고용은 일부 회복세

전북지역 경제 혼조세... 2월 생산·출하 큰 폭 감소

전북지역 경제가 제조업 부진의 여파로 전반적인 생산 지표에서 큰 폭의 감소를 기록했다. 다만 민간소비와 고용은 일부 회복 흐름을 보였고, 수출은 소폭 증가하며 경기 전반에 혼조세가 나타났다.

전북지역 제조업 생산은 올해 2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16.2% 감소했다. 지난 1월 1.2% 증가에서 한 달 만에 큰 폭의 감소세로 돌아섰다. 특히 자동차 생산이 37.7%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으며, 화학제품은 8.1%, 식료품은 7.6% 각각 감소했다. 출하 역시 전년 동월 대비 14.7% 줄었고, 재고는 2.9% 감소했지만 재고율은 146.4%로 전월보다 4.8%포인트 상승했다.

수요 부문에서는 소비가 다소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다. 2월 대형소매점 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17.7% 증가했고, 대형마트 판매도 18.4% 늘었다. 반면 승용차 신규 등록 대수는 25.1% 감소해 내구재 소비는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투자는 다시 약세를 보였다. 2월 건축착공면적은 전년 동월 대비 38.9% 줄었고, 건축허가면적도 13.9% 감소했다. 다만 미분양 주택은 2416호로 전월보다 126호 줄었으며, 준공 후 미분양도 1479호로 감소했다.

설비투자 지표는 비교적 양호했다. 기계류 수입액은 58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4.4% 증가했으며, 제조업

설비투자실행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97로 전월보다 7포인트 상승했다.

수출은 소폭 증가했다. 2월 수출은 5억5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3% 늘었다. 농약 및 의약품 수출이 72.6%, 농기계가 35.8% 증가하며 상승을 이끌었다. 반면 합성수지는 76.5%, 동제품은 18.4% 감소했다. 수입은 4억 달러로 10.1% 줄었으며, 무역수지는 1억5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고용은 소폭 개선됐다. 2월 취업자수는 96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6000명 증가했다.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과 전기·운수·통신·금융 부문이 증가세를 보였으며, 고용률은 62.3%로 0.4%포인트 상승했다. 실업률은 2.6%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동일했다.

물가 상승세는 이어졌다. 3월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했으며, 생활물가는 2.9% 올랐다. 특히 식유류를 중심으로 공업제품 가격이 상승하며 물가 오름세를 견인했다.

주택시장에서는 2월 매매가격이 전월 대비 0.2% 전세가격은 0.24% 상승했다. 전주는 상승세를 이어간 반면 익산과 군산은 소폭 하락했다.

경제심리지표는 엇갈렸다. 3월 제조업 기업심리지수는 98.1로 소폭 상승했으며, 비제조업 심리지수도 개선됐다. 소비자심리지수는 111.3으로 여전히 기준치를 웃돌았지만 전월보다 0.3포인트 하락했다.

전반적으로 전북 경제는 제조업 생산 위축이 두드러졌지만 소비와 고용, 일부 투자 및 수출 지표가 이를 일부 보완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오상근 기자

새싹보리 '혜누리' 보급 확대

농촌진흥청, 간 건강 개선 효과 뛰어나... 농가 소득 증대 기대

농촌진흥청이 간 건강 개선에 효과가 뛰어난 기능성 새싹보리 신 품종 '혜누리'의 보급을 대폭 확대한다.

농촌진흥청은 알코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간을 보호하는 데 효과가 있는 새싹보리 '혜누리'의 보급을 본격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혜누리'는 현대인의 간 건강 개선을 목표로 개발된 신 품종 겉보리로, 기능성 성분과 재배 안정성을 함께 갖춘 것이 특징이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새싹보리의 핵심 기능성 성분인 사포닌은 알코올로 생성된 간 내 유해 활성 산소 발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준다. 특히 발아 후 15~20cm 정도 자란 어린잎에 다량 함유된 것으로 확인됐다.

'혜누리'는 환경 재료가 가능한



시설재배 기준 건물 100g당 사포닌 함량이 1548mg으로, 기존 품종인 '혜양'(1186mg)과 '큰알보리 1호'(1038mg)보다 최대 49% 이상 높은 수준을 보였다.

농촌진흥청은 새싹보리 추출물의 간 보호 기능성과 관련한 원천기술을 확보해 산업체와 공동연구를 이어왔으며, 그 결과 지난 2023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기능성 원료로 개별 인정을 받았다. 이후 2025년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정식 출시됐다. /오상근 기자

전북 건설업계 “공사비·물량 확보 시급”

농어촌공사와 활성화 방안 논의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와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가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업계 현안과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와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는 지난 13일 전북지역본부장실에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공사 물량 감소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계의 애로를 공유하고, 실질적인 경기 회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회 측은 건설환경 변화에 대응한 적정 공기와 공사비 반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공사 품질 향상을 위해 현실적인 공사 기간과 적정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와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는 지난 13일 전북지역본부장실에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공사비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스마트팜 조성공사의 발주 방식 개선과 종합건설업체의 참여 기회 확대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협회는 대규모 위수탁사업의 경우 단순

시공 중심이 아닌 품질·안전·하자 관리까지 통합 수행할 수 있도록 종합공사 발주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건설공사 발주 과정에서 현장 여건을 충분히 반영한 설계도서 작성

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전달됐다. 소재철 회장은 “최근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원자재 수급 불균형으로 종합건설업체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발주 물량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농어촌 저수지와 같은 노후 시설물의 개량 공사를 조기에 추진해 지역 건설사에 새로운 일감을 제공해야 한다”며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특히 소재철 회장은 “스마트팜과 같은 대규모 사업은 단순 시공을 넘어 품질과 안전 관리가 중요한 만큼 종합공사 발주 방식 전환이 시급하다”며 전략적인 발주 확대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동인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장은 “어려움에 처한 지역 건설업계의 경영환경에 깊이 공감한다”며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들이 도내 건설경기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중기부, 팡리스 스타트업 성장 지원 강화

중소벤처기업부가 국내 파운드리 기업과 협력해 팡리스 스타트업 지원에 나선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삼성전자, SK 키파운드리, DB하이텍 등 국내 파운드리 3사와 함께 유망 팡리스 스타트업의 시제품 공정을 지원하는 ‘모두의 챌린지 팡리스’ 사업을 공고했다.

이번 사업은 인공지능 기술 확산에 따른 시스템 반도체 산업 성장에 대응해 핵심 역할을 맡는 팡리스 스타트업의 사업화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AX와 방산 분야에 이어 세 번

째로 추진되는 모두의 챌린지 시리즈다.

공모에서는 서류 및 발표 평가를 거쳐 최종 5개 스타트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는 수요가 높았던 12인치 공정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 삼성 전자 12인치 공정은 3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당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하며, SK키파운드리와 DB하이텍의 8인치 공정은 2개 기업에 기업당 최대 1억 원을 지원한다.

사업 신청은 5월 11일까지 K-Startup 포털을 통해 가능하다. /오상근 기자

‘신중년 취업역량 강화교육’ 본격 추진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이 신중년 구직자의 취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에 나선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은 도내 신중년 구직자의 취업역량을 높이고 지역 핵심산업 분야 취업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4월 중 ‘신중년 취업희망더하기 취업역량 강화교육’ 2차, 3차, 4차 과정을 순차

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전북중장년내일센터, 전북산학융합원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진행된다.

교육은 면접 전략과 AI 활용 실무능력 향상 등 실전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차수별로 농생명 식품산업, 사회복지·상담, 자동차 산업 분야에 맞춤형 취업역량 강화 교육과 구인·구직 만

남의 날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2차 교육은 16일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교육장에서 열린다. 농생명 식품산업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신중년을 대상으로 ‘실전! 합격을 부르는 면접 전략’ 강의를 진행되며, 교육 이수자들은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식품기업과 현장 매칭에 참여하게 된다.

3차 교육은 4월 28일 전북특별자치도 일자리센터 4층 전문교육장에서 진행된다. 사회복지와 상담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신중년을 대상으로 ‘AI 활용을 통한 실무능력 향상’ 교육이 운영

될 예정이다.

4차 교육은 4월 30일 전북산학융합원 교육장에서 열린다. 자동차 산업 분야 취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면접 전략 교육과 함께 현장 취업 연계 프로그램인 구인·구직 만남의 날이 추진된다.

경진원은 이번 교육을 통해 신중년 구직자의 취업 자신감과 구직기술을 높이고, 각 산업 분야에 대한 이해와 직무 적응력을 강화해 실질적인 취업 성과와 지역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상근 기자

한국전기안전공사, 재난취약시설 3000개소 집중안전점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재난취약시설과 사고 우려 시설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에 나선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오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두 달간 재난취약시설의 안전 확보와 위험요인 해소를 위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안전점검은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 전문가, 국민이 함께 참여해 생활 속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개선하는 범국가적 안전관리 활동이다.

이번 점검은 노후주택과 다중이용시설, 산업시설 등 재난취약 및 사고 우려 시설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약 3천



개소의 전기설비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사고 예방에 나설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